

# 우려했던 고3-재수생 성적 차이 안났다

평가원, 6월 모평 채점 결과 발표 수학 가형 어렵고 다른 과목 평이 졸업생·등급별 비율 큰 차 없어

어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학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반수생이 급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 상태다.

1등급 하한 표준점수(등급컷)를 살펴보면 국어 132점으로 4.41%만 1등급을 받았다. 2등급(126점)은 6.89%, 3등급은 117점(12.76%)이다.

수학 영역의 1등급 하한선은 가형 132점,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다. 가형은 1등급이 5%, 2등급(125점) 7.59%, 3등급(118점) 10.86%다. 나형의 경우 1등급이 4.54%, 2등급(129점) 7.3%, 3등급(119점) 11.33%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이 8.73%, 2등급(80점) 12.12%, 3등급(70점) 16.65%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구체적으로 고3 현역과 재수생 집단 간 성적 격차에 관심이 높지만 비공개 방침이다. 수능 출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영역별 응시자를 살펴보면 국어 영역은 39만4024명, 수학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치르는 가형 15만352명보다 수학 나형이 23만9327명으로 더 많았다. 사회탐구 영역은 21만1102명, 과학탐구 영역 17만

등급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영어	
	원점수	비율(%)	원점수	비율(%)	원점수	비율(%)	원점수	비율(%)
1	132	4.41	132	5.01	135	4.54	90	8.73
2	126	6.89	125	7.59	129	7.30	80	12.12
3	117	12.76	118	10.86	119	11.33	70	16.65
4	107	16.34	108	17.58	104	17.49	60	16.03
5	95	20.72	95	19.94	88	20.47	50	12.53
6	83	15.97	83	16.78	81	18.73	40	10.59
7	72	12.12	72	11.86	77	13.41	30	9.15
8	68	6.93	65	7.48	75	3.30	20	9.11
9	68미만	3.86	65미만	2.91	75미만	3.42	20미만	5.08

4308명, 직업탐구 영역 7865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만4283명이었다.

주요 영역·과목의 난이도는 수학 가형만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고 나머지 국어·수학 나형·영어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 만점자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수능(140점) 대비 1점 낮아졌다.

수학 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0점이나 높아 난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형의 경우 작년 수능(149점)보다 낮은 9점 낮은 140점이다.

영어도 지난해 수능 1등급 비율이 7.4%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쉬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다음 9월 모의평가는 오는 9월16일, 수능은 12월3일로 예정돼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오늘밤부터 장맛비

광주·전남 11일까지 이어져 다음주 초 다시 시작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특히 습도가 다소 높아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9일 밤 전남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며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부터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10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11일까지 계속되겠다"고 예측했다.

9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가 예상되며, 전남 남해안에는 5-20mm 안팎의 비가

이번 비는 12일 소강상태를 보였다 13일 다시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예보기간 동안 예상되는 강수는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이동경로에 따라 시점과 집중되는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새 운영 주체 YMCA 선정

시 교육청, 매년 17억 지원

과(국어·사회 등)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있다.

광주교육청이 대안직업교육 기관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새 운영 주체로 YMCA를 선정했다.

시 교육청은 최근 광주푸른꿈창작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한 결과, 응모한 5개 기관을 심사해 YMCA를 선정했다.

운영 기간은 9월부터 2년 6개월간이며, 시 교육청은 위탁기관에 매년 17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2016년부터 재단법인 대성직업전문학교가 수탁해 운영해왔다.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원적(원 학교)을 두고 1년 과정을 이 곳에서 미용,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과 보통 고

일반고에 적용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는 학생들이 한해 200명 가량 교육을 받고 있다.

앞서 광주푸른꿈창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총 34명)은 새 운영 주체가 바뀔 때 따라 고용불안을 호소했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푸른꿈창작학교를 직업교육과 보통교육 교육 위주에서 인성교육 등 대안 교과교육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점진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교직원들의 고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는 최대한 기존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비대면 수업하러 교재 수령 8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재를 수령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오고 있다. 이 학교는 신창동의 대형 사무 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혜배 기자choi@kwangju.co.kr

# 뇌졸중 후유증 유발 '기능해리' 발생 메커니즘 규명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김형일 교수 연구팀 '별세포' 이상변화 밝혀

뇌졸중 후유증을 유발하는 '기능해리'의 발생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김형일 교수 연구팀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이창준 단장 연구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연구로 '별세포'의 이상변화가 뇌졸중 후 발생하는 기능해리의 핵심 요소임을 규명했다. 이로써 뇌졸중 연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물론 뇌졸중 후유증 치료에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

대된다. 별세포는 신경 조직을 지지하는 신경 아교를 이루는 세포 중 하나로, 세포체가 작고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나가는 돌기를 가지고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손상되는 뇌 부위에 따라 운동·

언어·의식 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뇌졸중은 발생한 뇌 부위뿐 아니라 멀리 있는 다른 부위에도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를 '기능해리(Diaschisis)'라고 한다.

기능해리가 나타나면 뇌신경세포들의 활동성이 낮아져 뇌의 대사와 기능이 저하되지만 그 발생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정부24'서 신청하세요"

대학 관련 증명서 15종 행안부 오늘부터 서비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취업 등에 필요한 대학 관련 각종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대학 관련 증명서 15종의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에서 일괄 신청 가능한 대학 증

명서는 성적, 졸업·졸업예정, 수료·수료예정, 재학, 휴학, 제적, 자퇴, 교육비 납입, 학적부, 교직원직 이수·이수예정, 복수전공 이수(예정), 부전공 이수(예정) 등이다.

신청 시 입력항목은 학과명·졸업년도·학년 등 10개 항목에서 대학·학과 등 3개로 줄었다.

대학이 폐교된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졸업, 성적, 제적, 수료, 대학원 학위수여, 대학원 수료 등 증명서 6종을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 作 名 作 名 作

## 광화문父子작명가

**성명학 姓名學 數理의 영동 靈動**

一數 권위두령지상 權威頭領之像  
二數 고독빈곤지상 孤獨貧困之像  
三數 지덕겸비지상 智德兼備之像  
四數 사산불리지상 捨散分離之像  
五數 화목통합지상 和穆統合之像  
六數 순화적덕지상 順和積德之像  
七數 용감강건지상 勇感強健之像  
八數 자취성공지상 自取成功之像  
九數 외부내빈지상 外富內貧之像  
十數 매사중단지상 每事中断之像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의白山 선생

작명가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도봉산 山中카페에서 망중한 忙中閑의 白山**